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찾아서 문화일보 · 경희대 NGO 대학원 공동주최 특강

4-15 총선 이후 한국의 의회는 보수부터 진보에 이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게 됐다. 한국사회의 다원화와 시민사회의 확대를 반영하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의식과 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힘과 이익추구에 의지'를 실현하려는 의식과 문화, 사회적 실천이 우리 모두의 삶에 여전히 현대사회의 단면되어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관건은 무엇보다도 인간됨(humanity)의 보편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문화의 수립에 있을 것이다. 문화일보와 경희대 NGO대학원은 기획특강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찾아서'

를 공동주최해 4-15총선 후 우리사회 각 분야에 걸쳐 어떤 대안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담론의 지평을 열어보고자 한다. 이 특강에는 ▲사회경제 분야에서 이병천(간행인 경제학부 4월26일)교수, ▲환경분야에 정희익(녹색대학 석좌교수 5월12일)교수, ▲문화예술분야에 김지하(시인 5월19일)씨, 삼광원(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6월22일)교수 등 각계 저명한 석학들과 예술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희대 청운관 7층, 오후 7시) 또 경희대 NGO대학원의 조인원 대학원장을 비롯 이대수, 김상준 교수, 서울대 김홍우(정치학과)교수 등이 정치분야에서 담론을 펼친다. 문화일보는 매주 이들의 특강내용과 원고를 게재한다.

① 민주정치에서의 '공적토론'의 의의

토론 목적은 '설득' 아닌 '공동성찰'

토론 없이 치른 총선 진정한 참여 의미 못 살려
'함의' 중시하는 토론은 의미없는 요식절차일 뿐
'함께 생각하는場' 마련돼야 민주적 공동체 형성



이런 총선은 결과와 관계없이 '공적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사진은 한 유세장
에 무이 유력자들의 모습 유희일부 자유사자

일 마친 총선이 끝났다. 총선결과에 대해서는 모두들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총선이 '탄핵정국'속에서 벌어진 토론 없이 세 대결로 치러진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이에 걸맞은 정치문화가 수립되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이든 투표가 아니라 '공적토론'이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토론 없이 치른 총선 앞으로 민주적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공적 토론의 중요성을 논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목표가 '함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함의'를 우선시하는 것은 단지 '함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함의'가 우선시 되면, 토론의 전 과정은 '함의'의 산출을 위한 단순한 도구나 요식절차에 불과해지고, 이에 따라 예컨대 '분회의' 보다는 '위원회의'가 그리고 '위원회의' 보다는 '중진' 또는 '영수회'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공적토론'이, 따라서 '분회의'가 중요성을 갖는 정도는 '함의'가 아닌 '공동성찰'이 우선시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나치시대 국가사회주의자인 슈미트(C. Schmitt)는 '함의' 우선시의 관점에서 공적 토론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반면 파시즘을 비판한 브레히트(B. Brecht)의 연극론에서는 청중의 '공동성찰'을 촉구하는 '낯설게 하기'(Verfremdung)가 중심개념으로 등장하며, 이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정중과 의 토론'이 강조된다. 그의 연극론의 핵심은 절대화된 무대를 어떻게 상대화하느냐에 놓여 있다. 무대 위 연기자는 청중에게 미리 짜여진 내용을 연출하고, 압도하여, 그들을 개성시키려-여기서 개성은 슈미트 용어로는 '절망'을 의미하며-이 글의 논지로는 '함의'에 해당된다 하는데, 브레히트는 '낯설게 하기'를 통해 이러한 무대 위 연기자의 절대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파시즘적 요소가 배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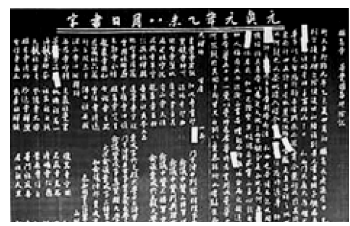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를 이 글의 맥락에 맞게 해석해보면, 공적토론의 장은 '함의'의 우선성' 또는 '절대성'을 상대화시킴으로

써, '함의'를 대량으로 주문생산하는 조립라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공동성찰의 무대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은, 공적토론이 '함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우선성'하거나 '절대성'을 안 띠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태도 속에는 파시즘적 요소가 침투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이 민주적 참여의 의미를 살려내는 과정으로 전락하기 위해서는, 그 초점을 '함의'가 아닌 '공동성찰'에 맞추어야 한다. 사실 '공동성찰'은 '공동체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월드컵 운동경기'나 '월드컵 응원' 그 자체가 당시의 독특한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된 '공동성찰'이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낸 장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월드컵 운동경기'나 '월드컵 응원'은 단지 공동성찰을 촉발시킨 계기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바버(B. Barber)도 참여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되풀이해서 강조하지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참여'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참여'에 수반되는 '공동성찰'이다.

일 짝이 중세의 아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히느님이 모세와 말 씌웠지만, 모세는 그처럼 큰 백성을 다스리고 관리할 때 필요한 의견은, 극히 현명하고 또 조금도 오만하지 않게, 이방인인 자기 장인에게서 얻지 않았던가?' 이와 마찬가지로 아거스틴은 오늘날 세계분쟁의 중심에 서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중동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같은 정도로 심각하게 갈등하는 한국의 보수-진보 진영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란바 배타적 종교의 전횡으로 알려진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 모세와 이방 민족 미디안의 제사장인 모세가 이드르가 나 는 대화!'

김 홍 우
서울대 교수·정치학



보각국사비 연구가인 백영동씨가 재현한 '인각사 보각국사비' 후면

인각사 보각국사비 복원한다 일연스님 일대기 기록... 훼손된 비문 재현 추진

■ 올해 2006년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1206~1289) 스님의 탄생 800주년을 맞아 경북 군위군 고령면 인각사(麟角寺) 경내에 있는 보물 제428호 '인각사 보각국사비'의 재현이 문화재청에 의해 추진된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7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지관(古仙)불교문화연구원 원장(院長)스님과 상인(上仁)스님, 보각국사비 연구가인 백영동(白映洞) 박영민(朴映敏)교수, 정병삼(鄭炳三)속명(俗名)예교수, 채상식(蔡相植)부산(富山)교수 등 저문위원 8명과 노대섭(羅大涉)문화재청장, 김창준(金昌俊)문화재청 간조(幹造)과장, 박상국(朴尙國)문화재연구원장은인학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문위원회의를 열었다.

'인각사 보각국사비'는 일연 스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로 제자인 청번(淸番)스님 등에 의해 1260년(고려 충렬왕 26)에 세워졌다. 인각사는 일연 스님이 탄년에 머물렀던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집필했던 곳이다. 비문은 당시 문장가인 민지(閔致)가 행명을 받들어 지었고 글씨는 중국 서성(書聖)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를 본따서(本) 지어 만들어졌다. 비문의 서체가 수려해 중국 사신들이 탁본을 요구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으나, 잦은 탁본 등으로 인해 점차 훼손돼 현재는 약간의 비문(碑片)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남아있는 비문에서 판독가능한 글자는 전면(前面) 227자, 후면(後面) 142자 정도에 원 비문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이중 비문 전면의 경우 한국국립문화재연구원 소장 고비첩(古碑帖)의 영인본(1981)에 민지가 쓴 양기(陽記) 228자 전체가 수록 돼 있어 복원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다. 비 앞면에는 일연 스님의 출생 배경과 태몽, 어린 때부터 입적 때까지의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 반면 일연 스님에 관한 영인본(靈苑圖)과 문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비 뒷면 등(尾記)의 경우 완전한 내용을 전하는 탁본이 없어 문제가 된다.

다만 비 음기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나타냈던 채상식 부산대 교수가 지난 1970년대 80년 발표한 논문 통해 85자를 재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백영동씨가 80년 비 음기의 복원을 시도했다. 이밖에 김상현(金相顯) 동국대 교수도 91년 새로운 보각국사비첩 10여종을 검토해 대략 1383자의 비 음기를 복원, 복원을 시도한 바 있다. 80년에는 정병삼(鄭炳三)속명(俗名)예교수까지 510자와 비 음기 1362자를 판독하는 간송본(杆送本) 소장 보각국사비명을 소개했는데, 여기에는 문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문도첩(門徒契)이 708자 정도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재청이 지난 17일 개최한 관계전문가 저문위원회의에선 일단 현행성 보각국사비를 연구해낸 백영민(80)씨의 복원연구 성과물을 중심으로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저문 및 의뢰수령과 고열자일 등을 거쳐 보다 객관성 있는 비문을 재현하기로 했다. 특히 음기의 경우 단순한 글자의 배치도 아니라 비의 내용이 어떠한 뜻으로 이뤄졌는가에 대한 내용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사체도 현재 남아 있는 탁본을 중심으로 서체를 확충하고, 그 이외의 글자는 왕희지체를 최대한 수집해 비문을 집자기로 했다. 글자 배열의 문제나 비 형태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최영림기자
ycho@nurihwa.co.kr
편집=이경숙기자 klee7@73